

격 려 사

전통사찰(傳統寺刹)은 불상 등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스님이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종교적 성지(聖地)로서 뿐만이 아니라, 전통사찰은 자연(自然)과 문화(文化), 역사와 전통이 같이하고 있는 이 시대의 소중한 복합유산지역(複合遺産地域)으로서 우리가 지켜가야 할 소중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전통사찰들은 불교 내·외적으로 무분별한 개발(開發)과 무지(無知)로 인하여 원형이 파괴되고, 중요한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통사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공익적 가치(公益的 價値), 또는 유산적 가치(遺産的 價値)들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사찰은 물리적 공간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와 다음 시대의 소중한 유산자원(遺産資源)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 많은 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사찰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문화적 가치와 기능들에 대해 우리는 오랫동안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 아래 조계종단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2009년에 이르기까지 전통사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치들, 특히 자연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등을 포함한 공익적 가치들을 다양한 평가기법을 통해 확인하고, 전통사찰(傳統寺刹)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위한 학제간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전통사찰(傳統寺刹)에 대한 최초의 학제간(interdisciplinary study) 연구라는 의미 외에도 전통사찰에 대한 이해(理解)와 홍보(弘報)를 위한 전문적인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년간의 연구결과를 담은 성과물인 '한국의 전통사찰-전통사찰의 공익적 가치평가 및 관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대한불교조계종환경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과 본 연구를 수행한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이영경교수, 부산대학교 지역환경시스템공학과 이병인교수, 조경학과 최송현교수, 경북대학교 산림자원학과 한상윤교수님께 심심한 고마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전통사찰(傳統寺刹)의 올바른 이해와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자료들이 계속 추진되어 전통사찰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4년(2010년) 11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